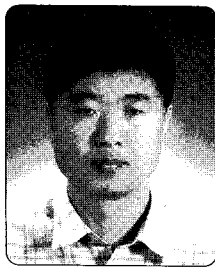


육우자조금 제도 도입에 바란다



강병권
본회 이사

2003년 봄, 대전에서는 “육우산업발전 대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육우산업은 정부의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 정책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육에 밀려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었고, 미래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육우산업이 다시 살아 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전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가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육우산업의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제기 된 것이 ‘육우 얼굴 찾기 운동’과 ‘육우자조금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육우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육우산업의 뿌리 찾기

육우산업은 오랜 기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다. 비록 낙농산업의 부산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소비 수준 향상으로 한우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유통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유통업자는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육우 농가도 이를 알면서도 세태에 타협하면서 상황을 적당히 즐기는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록 쇠고기와 관련한 각종 파동이 있을 때마다 육우산업은 '젓소고기', '둔갑판매', '수입소' 등 모든 언론의 매도 대상이 되었고, 육우산업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찾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육우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육우산업의 뿌리를 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육우 얼굴찾기 운동"이었다.



〈롯데마트 앞에서 열린 육우얼굴찾기 캠페인〉

뿌리 깊은 고정 관념 - 젓소 고기

육우 얼굴찾기 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육우' 라는 이름을 찾는 것이었다. 가는 곳 마다 '육우' 라는 명칭은 찾을 수 없고 대부분이 '젓소' '젓소고기' 잘해야 '젓소 수소' 로 표기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수입소를 국내에 들여와 키운 소'로 표기한 곳도 있었다.

"육우"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문을 두드린 곳이 '축산전문지'였다. 축산신문을 비롯해 농수축산신문, 축산경제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젓소 수소'로 표기된 모든 언론보도 자료를 '육우'로 바꿔나갔고, 이 때 축산전문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육우'라는 이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었다. 농림부와 축산물 등급판정소, 농협 공판장 홈페이지 등에서 '육우' 명칭을 찾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공공기관에서 '육우'라는 이름을 찾자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농·축협에서도 '육우'라는 이름이 일상화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지상파 방송사와 메이저 신문들이었다. 뉴스거리에 혈안이 된 거대 언론사들은 '한우로 둔갑된 젓소고기'라는 훌륭한 뉴스거리를 놓치지 않고 보도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육우산업이 고사 직전에 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육우산업이 한 번은 치르고 넘어야 할 '업보'와도 같은



〈농협 하나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육우데이 행사〉

것이다. 육우산업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심한 홍역을 앓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한 일이 아닐까.

반전의 시작, '육우 데이'

육우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공서나 언론사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육우농가가 우리 산업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한 것' 바로 그것이다. 육우를 소비자들

에게 제대로 알리고, 육우인들의 육우산업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기 위해 시작 한 것이 "육우 (6/9)데이 행사"였다.

육우 데이 행사는 비록 규모도 크지 않고 초라한 행사로 끝난 적도 있지만, 육우산업이 우리 축산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고, 육우인들의 가슴속에 우리 산업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제6회를 맞이한 2009년 육우 데이 행사는 처음으로 '요리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육우고기를 이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육우산업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육우' 제도권에 진입하다.

2003년에 육우 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의하였지만 한동안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육우'가 자조금을 거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조금 거출은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육우는 법 규정이나 시행령에 '독자적인 축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우, 양돈, 낙농, 양계 등 법적으로 인정받은 축종 이외에는 '자조금'이라는 문구조차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자조금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였다. 협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006년 법 개정과 2007년 시행령이 개정되어 "육우"도 자조금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에만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육우 산업'은 이제 법적

근거를 갖고 농림부의 '정책 수립 대상 축종'으로 점차 인정받아 가고 있다. 육우부문도 '브랜드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고, '육우고기 군납'과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등 육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

육우산업, 시련과 도약의 계절

최근 우리 육우산업은 큰 시련에 빠져있는 듯하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큰 희생과 시련을 겪어왔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시민들의 저항, 이로 인한 쇠고기 소비 위축, 무엇보다 결정적인 타격은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고,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로 극도로 위축되었던 육우고기 시장은 점차 안정과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으며, 올해 초 KBS에서 방영된 "수요기획"에서 '거저 줘도 안가져가는 젖소 수송아지'로 시작된 육우관련 방송은 최근 MBC의 "고향이 좋다"와 KBS의 "6시 내고향", SBS의 "출발, 모닝와이드"와 "대한민국 쿡"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방영되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과거 부정적인 시각에서 육우를 제대로 홍보하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으로 '육우산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바로 "육우 자조금 사업"의 성공 여부이다.

또 하나의 도전, 육우자조금

협회는 지난 3월 13일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육우자조금 거출을 결의하고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결의는 의무자조금이 아닌 '임의자조금'이라는 한계를 안고 시작하지만, 조직력이 미약한 육우 농가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육우산업의 지속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 운동 행사〉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육우자조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육우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육우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스스로 자조금 거출에 대한 참가 결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육우산업의 자원을 정확히 파악한다.
육우 농가의 사육 현황과 지역별 조직 여부, 브랜드 사업 주체와 참여 농가 현황, 지역 농축협을 통한 농가 현황 파악 등 육우산업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 ③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출 기준을 마련한다.
임의자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임 승차’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거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④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임의자조금 사업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육우 농가를 발굴하는 작업과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자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육우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한다.
자조금 거출과 육우에 대한 홍보로 소비자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조금 사업, 선택이 아닌 ‘필수’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 되면 수입육의 저가 공세로 국내 축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예측했었다. 물론 우리 축산업은 최근 몇 년간 사육호수의 급격한 감소와 사육 두수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으면서 많은 변화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쇠고기 산업은 품질과 안전성, 신선도와 함께 ‘우리 것’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면서 ‘가격’ 이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자조금 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자조금 사업은 축산업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한우자조금 사업’이 투자 대비 5.37배의 소득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고, 한국자조금연구원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양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인기 부위 즉, 저지방부위의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 타 축종에 비해 ‘육우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은 아직 우리가 ‘육우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하반기 육우자조금 거출을 결의하다)

육우자조금 사업과 함께 지역 조직을 만들자.

육우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결국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육우농가가 하나의 대오로 묶여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이며, 조직력을 강화해 어떠한 시련도 극복 해 나갈 수 있고, 자력으로 육우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을 하려면 전국의 육우농가가 참여하여 농가 호수 또는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의 조직력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소한 광역으로 도별 조직이 갖춰져야 하고, 육우 사육 농가 20호 이상만 되면 지역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20개 이상의 육우지부를 결성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는 임의자조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육우 농가를 하나로 묶어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누군가의 자발적인 노력과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과 서로 협력하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

받았다. 하지만 아직 걱정이 많다. 아니,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로 법도 개정됐고, 육우홍보자금도 지원 받았고, 자조금 거출 결의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결의에 차 있는가?

누구보다 내가 먼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자조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주체들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먼저, 축산전문지를 비롯하여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 육우자조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도축장, 육우 브랜드 경영체와 유통업체, 육우사료 생산업체와 동물약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이 육우산업의 발전으로 서로가 공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자.

며칠 전부터 SBS, YTN 등에 육우에 대한 광고가 시작되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이 오랜 기간 서자 취급 받아왔지만 이제부터 당당히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알려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육우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설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 육우 농가의 참여와 정성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육우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육우자조금 사업”에 모든 육우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합시다. ☺

